해인사, 화엄경 낭독 39개월 대장정 입재한다

대적광전서 3월 19일 대장정 입재법회 개최

방장 스님 특별법문 내리고 무비 스님 강설도 진행 예정

3년 3개월 간 총 39회 진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는 3월 19일 1시 경내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대법회'를 개최한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3월 19일 1시 경내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대법회'를 개최한다.

화엄경 완독 대법회는 80권 〈화엄경〉 전권을 총 39회로 나눠 매달 1회씩, 총 39개월(3년 3개월) 간 스님들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읽고, 법문하고, 사경하는 자리다.

해인사는 "화엄경이 '10바라밀'과 '보현보살 10대 행원'으로 삶과 세상을 보는 올바른 지혜를 열어주고,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이루는 큰 자비를 펼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화엄경〉 완독 대법회 개최사유를 밝혔다.

해인사는 "3년간의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대법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인류사회가 질병에서 건강한 삶으로, 빈부격차의 불행에서 고루 번영하는 사회로, 대립과 전쟁에서 화합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진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대법회'는 경전합송, 법문, 사경, 영가시식, 이웃을 돕는 보살행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개막법회는 명고, 범종5타를 시작으로 7처9회 예경, 방장스님 개막법어, 화엄경 합송, 무비 스님 강설법어, 약찬게 합송 등이 진행된다. 팔만윤장대 화엄경 경구 뽑기, 뽑은 화엄경 경구 읽으며 해인도요잡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모든 행사는 정부 및 종단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된다.

해인사는 "이번 대법회는 전국 불자들의 보리심을 함양하고 보살행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정진법회"라며 "대법회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삶과 세상을 보는 올바른 지혜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이루는 큰 자비를 펼치시기를 바란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법회 일정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kr)와 유튜브(해인사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빛고을불교대학 개교 및 1기 입학식 개최

3월 6일 신입생 50명 참석해 불교 공부 매진 다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반가운 입학식이 열렸다. 개원 100일을 맞은 광주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3월 6일 '빛고을불교대학' 제1기 입학식을 갖고 초발심 불자들의 불교교육을 시작했다.

입학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연성 스님을 비롯해 신입생 50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학사보고, 신임학장 및 교학처장 임명장 수여,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발원, 학장 취임사, 청법가, 법문, 사홍서원 등으로 이어졌다.

덕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지만 올바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가르침을 완성해 나아간다"고 설명하며,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점은 '자비행'이다.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들의 근본 자세"라고 강조했다.

덕문 스님은 이날 신임학장으로 주지 연성 스님을, 교학처장으로 이동배 정광중 교장을 임명했다.

이날 학장에 취임한 연성 스님은 "광주처럼 불교 불모지에서 새 불교대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좋은 도량에서 맞는 쉽고, 현실성 있는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입생을 대표해 이강명 씨는 발원문에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받는 지혜를 갖추고자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빛고을불교대학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간반, 목요일 오후 7시 야간반이 운영되며, 80%의 출석률과 답사 및 수련회, 봉사활동 2회 이상에 참가해야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매주 정기수업으로 사찰예절, 종교개론, 불교개론, 참선법, 기도법, 부처님생애, 문화답사, 기초교리, 예불문, 찬불가 등을 진행한다. 2학기에는 천수경, 반야심경, 특강 등도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협력 체계 구축 완료

선운사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센터)은 3월 8일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와 상호 협력 체제를 확립하고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조직과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조직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2년에는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개별 공동체 사업'과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조직사업'이 진행된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률이 상승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명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취임

(사)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이 · 취임식 3월 6일 봉행


신임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이 문화원기를 건네받고 있다.

(사)가야문화진흥원이 제3대 이사장 도명 스님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김해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은 3월 6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제3대 이사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가야문화진흥원 2대 이사장 불인사 송산 스님, 여여정사 도명 스님, 장유사 해공 스님, 자비도량회장 혜진 스님, 바라밀선원 인해 스님, 연화사 범일 스님, 안국선원 석산 스님, 미타선원 하림 스님, 원오사 정관 스님 외 지역 스님, 허성곤 김해시장, 민홍철 국회의원,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 안상근 부총장 외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취임식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연혁 소개, 내빈 소개, 환영사, 축사, 이임사, 기전달식, 취임사, 감사패 전달,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휘호 전달식, 상임이사 및 운영이사 위촉식, 공지사항(축전 및 화환소개), 사홍서원, 폐회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가야문화진흥원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초대 이사장 인해 스님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대 이사장 송산 스님은 코로나 확산과 불인사 대작불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흥원을 안정화시켰다"며 "'역사계몽운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4월 30일 전주시청 전북 봉축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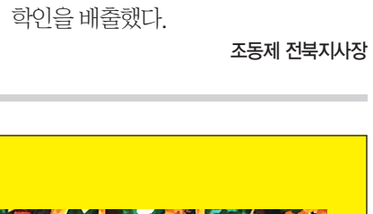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3월 4일 전주 수현사 2층 교육실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축일정과 예산안을 토의했다.

봉축위 회의에는 공동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보문종, 용화종, 천태종 등 각 종단대표, 전주 완주지역 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남궁선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성규 전북청년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봉축위는 봉축위원과 집행위원회 등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봉축행사는 4월 9일 전주역 앞 광장에서의 기원탑 점등을 시작으로 5월 1일 전북어린이 큰 잔치, 6탄약창 연등제, 연합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로 이어진다. 4월 30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는 대규모 봉축행사가 열리며 전주 도심에서 연등축제가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제35기 불교학과 입학

3월 6일 입학생 총 83명 참석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제35기 불교학과 및 제30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3월 6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을 비롯해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태기준 전법사회장, 1회 졸업생 여산 김윤봉 거사 등 대학관계자와 불교학과, 법사과 입학생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삼귀의례, 연혁보고, 입학선언, 입학생선서, 입학식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서는 권명준 학인을 비롯한 불교학과 57명과 법사과 김남수 학인을 비롯한 26명 총 83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학인대표 불교학과 김주섭 학인은 선서를 통해 "영예의 입학을 허가해 주심에 신입생 일동은 재학 중 학칙을 준수하고 참신한 학풍을 진작하며 불자로서 자질을 함양할 것"을 선서했다.

이창구 학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불교는 인문학과 신앙이라는 양 날개로 하늘을 나는 새"라며 "믿음만 있고 이해가 없으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이해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삿된 견해가 자란다"고 인문학과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다.

이어 "전북불교대학은 믿음과 이해가 조화를 중요시한다. 인문학, 철학, 역사, 문화가 함께 답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준비했다"며 "1년 후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니 걱정 말고 다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개교한 전북불교대학은 뜻있는 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지역 재가불자의 교육도량이자 포교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불교대학은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열악한 전북지역의 환경 속에서도 30여 년간 시민강연회, 인문학 특강 등 질 높은 강연과 초청법회, 보살계, 산사수련회, 철학과 문화가 있는 문화재답사 등 신행활동을 이어왔다. 전북불교대학은 지금까지 3567명의 졸업학인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